환난의 체감온도 줄여 나가기

(살후1:1~12)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4.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5.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환란의 체감온도 줄여나가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환란의 체감온도 줄여 나가기'

잊지 못할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렸어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젊은 두 남녀가 있는데, 둘 다 아주 살집이 아주 풍성합니다.
저도 살집이 만만치 않은데, 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풍성한 두 남녀가 커플룩을 입었어요.
근데 아내는, 한겨울에 트레이닝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무릎 아래까지 오는, 완전 반바지도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냥 무릎 아래까지 오는 트레이닝 반바지를 입고, 반팔 티셔츠를 똑같이 입고 그리고 위에 조끼를 입었어요.
하아! 대단해요.
추운데도 참는다, 사람이 추우면, 얼굴이 벌써 시퍼러둥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가 없

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추위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에요.
이 두 커플은 추위를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추위에 대한 체감온도 자체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위를 느끼는 민감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추위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꼭 마음으로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동안에 환란과 고난은 반드시 주어진다.
우린 자꾸 오해해요.
데살로니가교회 같은 초대교회 때, 로마시대나 아니면 조선시대 처음으로 천주교가 들어올 때, 이럴 때나 박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난과 환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반감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박해는 환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누가 나를 박해하지 않아도, 기독교인에게서 환란과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기정사실로 주어지는 환란과 고난에 대응하는 방식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환란과 고난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환란과 고난의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환란과 고난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느냐?
추위가 왔을 때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꺼운 오리털 파카를 입는 것이 이제 극복하는 방식이잖아요?
환란과 고난이 왔을 때, 그 젊은 두 사람이 추위에 대응하는 방식처럼, 아예 추위를 느끼는 체감온도의 수치 자체가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환란과 고난에 대한 체감온도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환란을 환란으로 느끼는 정도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환란도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관심한 순간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졸고 계시는 동안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환란과 고난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박해더라도, 순교하는 순간도 마찬가지지요.
스테반이 순교할 때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환란에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환란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환란을 붙잡고 우리가 씨름해서 환란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느끼는 체감온도가 낮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환란을 환란으로 느끼는 정도가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환란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환란에 대한 체감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낮아지고 낮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상황까지 벌어져야 되냐 하면, 대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반전이? 환란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정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더 지나가서 말도 안 될 정도로 더 지나가서, 나중에는 환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환란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 뭐 그렇다 그러면 이상한 변태지요.
근데 환란 때문에가 아니라, 환란 중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대반전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교회 상황을 이제 봐요.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낸 후에, 교인들의 믿음은 여전히 박해와 환란 가운데에서도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한 광신적인 수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교회 안에 여기저기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란 중에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잘 지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교인들의 그 믿음과 인내를 온 세상에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과, 동시에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후서를 쓰는데,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뒤에 한 2~3개월 뒤에 이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내용은 끝까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교인들의 환란 가운데에서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증을 한 것이에요, 간접 간증.
예를 들어 말하면서 간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간증 치고는 좀 다르지요, 낯설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간증이다 그러면, 전부 주어진 환란과 고난을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극복하게 되었다는 게 우리의 간증에 거의 99% 아닙니까?
누가 주어진 환란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내가 믿음을 잘 지켰고 그 극심한 환란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처럼, 기쁨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바울의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어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지금까지처럼 환란을 견딘 것같이, 지금까지 견뎌온 것같이 조금만 더 견디면 이제 이 환란이 극복이 되고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희망적인 어투는 조금도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것도 힘든데, 앞으로도 그 환란은 계속 될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자, 고지가 바로 저기다.
이런 유의 희망적인 어떤 기미는 조금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과 고난이 없는 희망적인 상황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직 예수님이 재림하는 상황에 가서야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까지는 그런 고난과 환란이 없는 삶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이거나, 이미 데살로니가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고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환란과 고난이 없을 거라는 기대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부드러움 속에 있는 잔인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바울의 생각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아예 무슨 성공이나 형통 같은 것을 성취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몫의 기업을 이 세상에서 챙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건 내 꺼야, 이건 내가 이루어야 될 거야, 이런 게 세상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환란과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상황을 인내함으로써 살아야 되는데, 그 인내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체감온도를 줄이는 겁니다, 환란에 대한 체감온도를.
그래서 인내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다 줄이다 나중엔 기쁨의 자리까지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란과 고난을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5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한다'

하나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이 내용을 한 번 살펴봅니다.
인내, 환란이 주어지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인내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체감온도를 줄여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내용이에요, 환란에 대해 체감온도를 줄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한 번 살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의 체감온도를 줄여 나가는 과정이 인내인데, 그러면 환란은 왜 환란이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환란은 왜 고통이 되는 겁니까, 왜 싫어할 만한 일이 되는 겁니까.
내가 좋아해서, 마음에 들여놓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좋아해서 마음에 들여놓으면,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마음 안에 들여놓은 것에 대해 우리가 바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그 바람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좋아서 마음에 들여놓은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한 바람도 있는데, 현실에서 그 바람과는 정 맞지 않게 반대로 상황이 돌아갑니다.
그 내 바램이 현실에서는 깨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환란입니다.
이때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내 자식이 좋아서 마음에 들여놨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라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픕니다.
사업을 내 마음에 들여놨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는데 현실에서 안 됩니다, 깨어져 나갑니다, 그 바람이.
이게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란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받는 박해와 다르지 않나?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박해를 주시느냐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마음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들어오신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주어질 때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환란이고, 그럴 때 마음에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환란을 극복한다는 건 무슨 뜻의 의미가 되냐 하면, 내가 마음에서 좋아서 마음

안으로 들여놓은 그것을 절대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들여놓는 것이, 이게 죄악이고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더러운 점인데, 환란이 주어진 건 다행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들여놓은 것에 대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좋은 것이지,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것이 죄악이고 우상숭배고 더러워짐인데, 그 더러워짐의 상태에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잔인해 보이지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결국, 이 환란이 주어지는 이유는, 환란 자체가 환란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해서 품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환란을 붙잡고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 때문에 환란이 사업이 바라는 대로 안 된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 고통을 극복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사업을 붙잡고 있는 마음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못돼 먹은 게 어디 있어요.
사업이 안 되면, 사업체를 법적으로 내 소유에서 다른 사람 소유로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부터 사업을 내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사업을 버리면, 사업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내 마음에 고통으로 느껴지는 체감온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체감온도가 낮아지다, 낮아지다 어느 지경까지 이루어지게 되냐 하면은, 완전히 사업이 빠져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사업이 차지하고 있던 빈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사업이 되고 안 되고가,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에 달렸다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참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삼성이 이 건희 씨의 지도력 아래 잘 되고 있다, 이거 참 우스꽝스러워요.
하나님이 그냥 되게 내버려 두고 계시니까 잘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가운데, 자기 능력으로 일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환란을 주십니까?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사업 잘 되는 것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환란을 대응하는 방식은, 환란 체감온도가 옛날 같으면, 요 정도 일이 안 됐으면 난리가 났어요, 다 뒤집어 졌습니다.
근데 자꾸 체감온도를 줄여 나가는 인내의 과정을 겪으면서, 똑같은 환란이 주어져도 이제는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그렇게 외부적인 환란이 있는데도, 분명히 사람들은 환란이라고 하는데도 나는 그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기뻐하는지를.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욥, 욥 같은 경우.
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해서 마음에 들여놓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 자식, 아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체면과 명예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에요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더?
근데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욥이 대응하는 방식을 보세요,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갖고 가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태를 어디로 환원시키나 하면, 나는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왔으니까 빈손이 본전이다, 적신으로 돌아갈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빈손이 본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걸 다 버리는 겁니다.
현실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마음에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욥의 아내는 어땠냐 하면, 현실에서 재물을 잃고 자식을 잃었습니다.
이 욥의 아내,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식 10명을 다 잃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 잃어버린 자식을, 마음에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욥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아내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가시지 않느냐, 근데 이 아내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식을 붙잡고, 잃어버린 재산을 붙잡고 있는 마음에,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이

걸 놔야 하나님을 안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가운데, 고통의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 좋아하는 걸 놔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데, 좋아하는 걸 계속 붙잡으니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근데 욥은, 하나님을 붙잡느라고 마음에서 놔버렸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인내의 과정이에요.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다 내보낼 때, 그래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전에는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얘기 하면서 하나님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산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하신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흘러갈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걸 또 내가 마음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또 자식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그러더라,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 비싼 고난의 값을 치르면서 도달한 것이 다시 다 무효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지점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는 이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면 됐지, 하늘나라 가는 것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환란을 주신다는 겁니까?
보세요, 어저께 우리 그런 말 했어요.
피겨스케이팅을 할 줄 모르면, 빙판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근데 피겨스케이팅을 할 줄 알면, 빙판에 들어와서 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할 거 같아요?
거기서 사업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보좌가 있고, 승천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닌, 그 천국에 가서 우리는 공부하겠어요? 출세하겠어요? 사업하겠습니까? 뭐 합니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천군천사가 지금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직업이 찬양인 게 아닙니다.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을 다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좋으면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보좌에 앉아계신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매력이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라는 것도 천국에는 없겠지만, 영원토록 새롭습니다, 보면 볼수록 새롭습니다, 무궁히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하늘나라의 일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일과에요 일과.
영원토록 새롭게 하나님의 국면을 발견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아무리 좋은 여자도, 살아서 3년 지나면 지루해 지는 거예요, 권태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새로운 거예요, 영원토록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게 천국생활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건 뭐에요?
이 세상에서 좋아해서 즐길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아까 말한 대로, 욥이 잊어버려요.
재물, 벌어들이면서 돈을 좋아해서 마음에 들여놓고 그것에 대한 바람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즐겁습니다.
자식을 좋아해서 마음에 들여놨을 때, 바람이 생기는데 그 바람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아! 마음이 즐겁습니다.
돈을 즐기는 거고, 자식을 즐기는 거고, 사업을 즐기는 거예요, 관직이 높아질 때 그걸 즐기는 거예요.

즐길 게 많은 가운데, 유독 다 제쳐놓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즐깁니다.
이건, 빙판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피겨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환란이 주어지면서 마음에서 좋아했던 걸 다 놔버리고, 환란의 체감온도를 줄여가면서 하나님만을 모셔 들여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길 줄 아는 체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성이라 그랬어요, 영성.
우리가 영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체질, 이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혼 속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피겨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자만 빙판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부활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재벌의 총수가 딱 부활한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이건 뭐 하나님을 즐길 줄 아는 기질이 제로인 거라 제로.
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은 하나님을 즐기는 것 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좋아하고, 다른 것 사랑하면서, 온통 돈 즐기고 사업 잘되는 거 즐기느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왜 하늘나라에 데리고 들어가겠습니까?
자식을 일곱 낳아가지고 일곱 명이 다 잘됐어요.
그 사람이 재림 때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자식 때문에 즐거워 하는데는 도사인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 하는데는 아무 재능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빵점인 거라 빵점.
이 사람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만이 일인 하늘나라에 왜 데리고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왜 환란이 주어지느냐? 환란의 체감온도를 낮추는 것을 일생의 과제로 삼아라.
그래서 자꾸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체질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들을 내보냅니까?
십자가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사람인데,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좋을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환란 가운데 환란의 체감온도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환란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들에 대해 내 마음이 죽음으로써, 체감온도가 낮아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환란 가운데 기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즐기는 것만이 일인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